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현황

2015. 6. 8.



미래창조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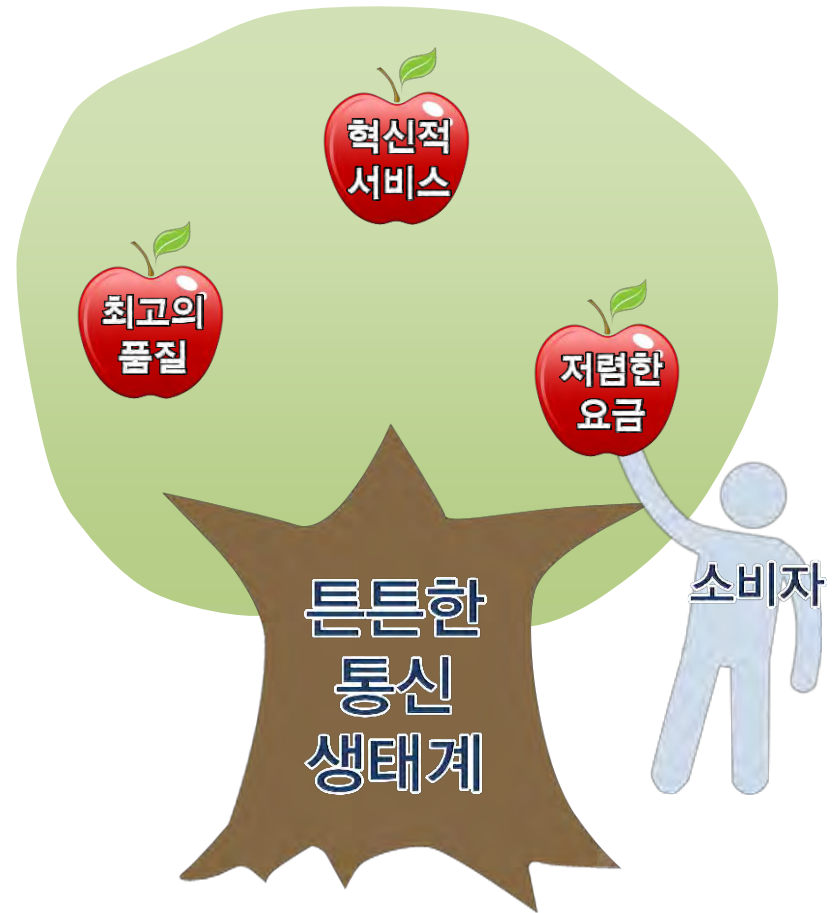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통신정책 방향

통신 산업

VS.

소비자 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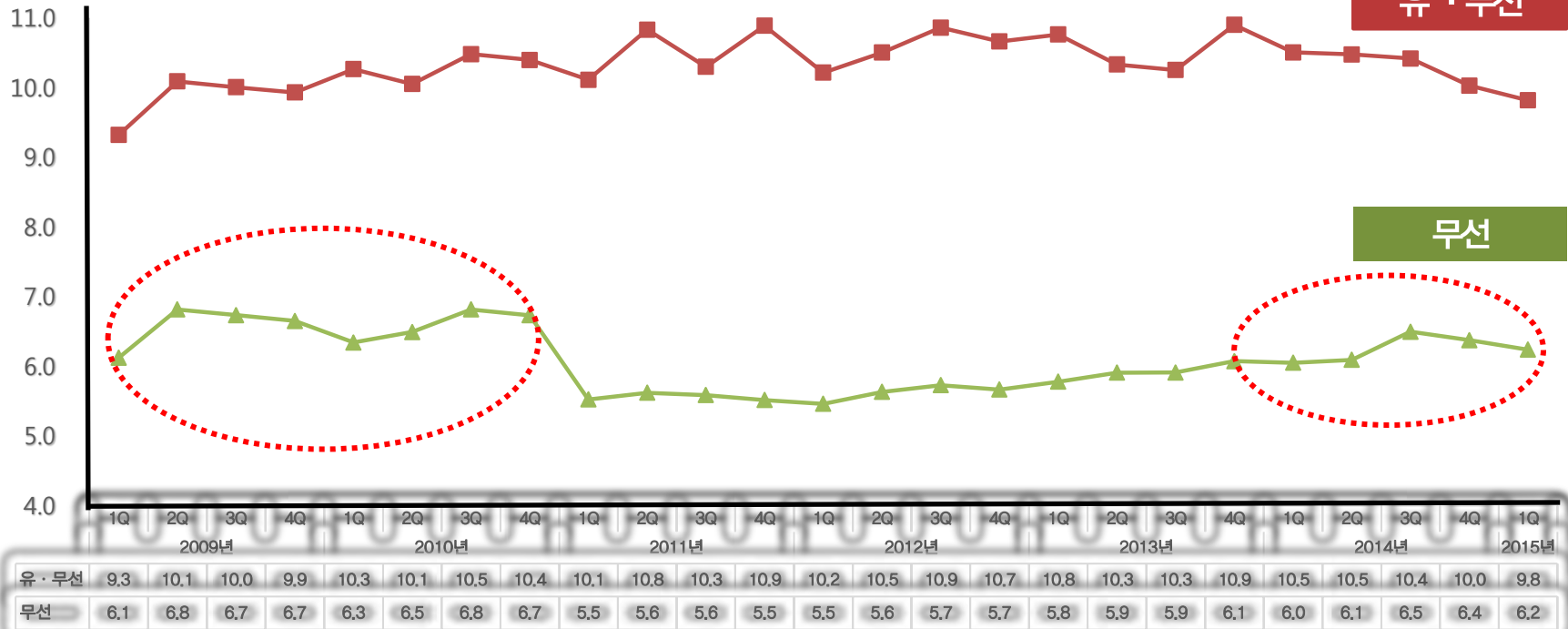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① 통신3사 매출액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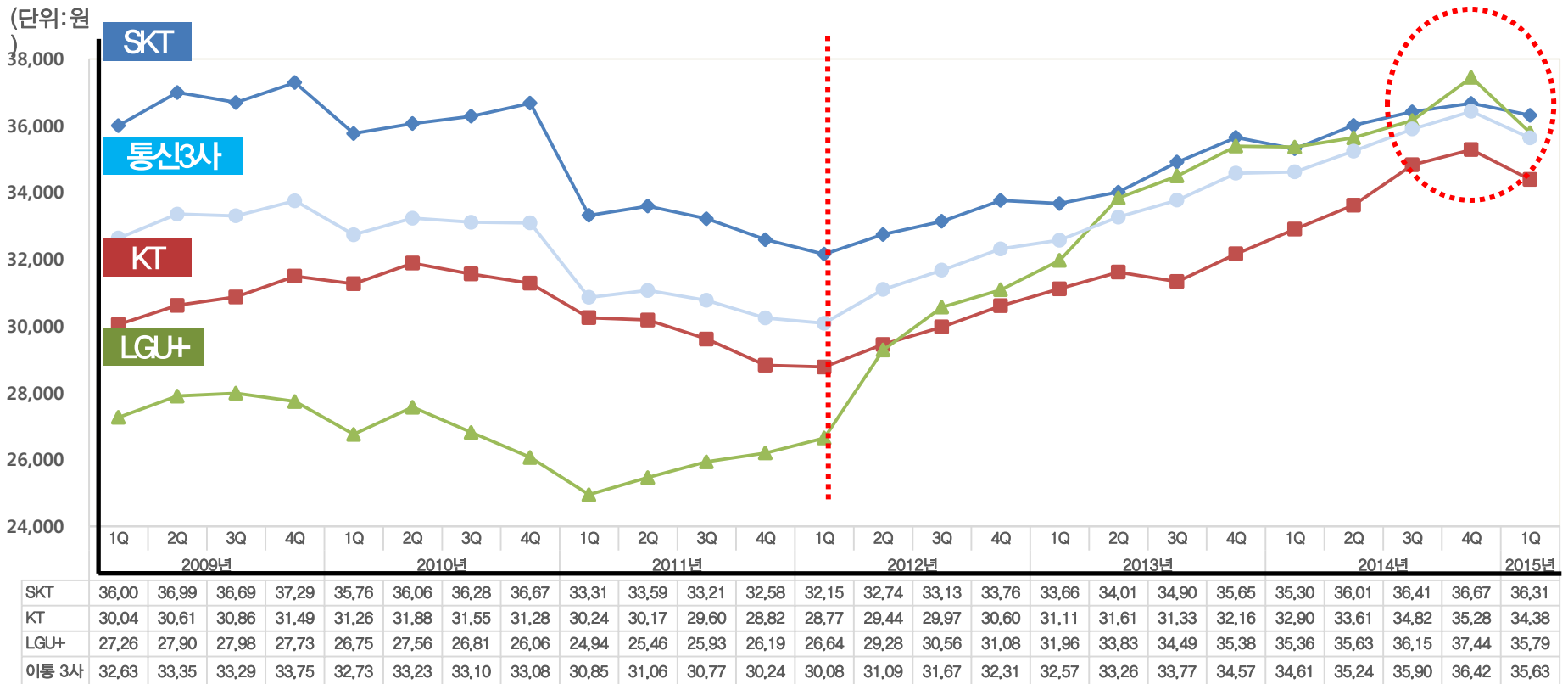
무선 매출액 : LTE 서비스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년도 이전 보다 낮은 수준으로 '14년 4Q 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음

(단위:조원)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② 이통3사 무선ARPU 추세

'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ARPU가 '15년 1Q 처음으로 감소(과거 6년간 연평균ARPU 증가율 1.5%로 연평균 물가지수 2.3% 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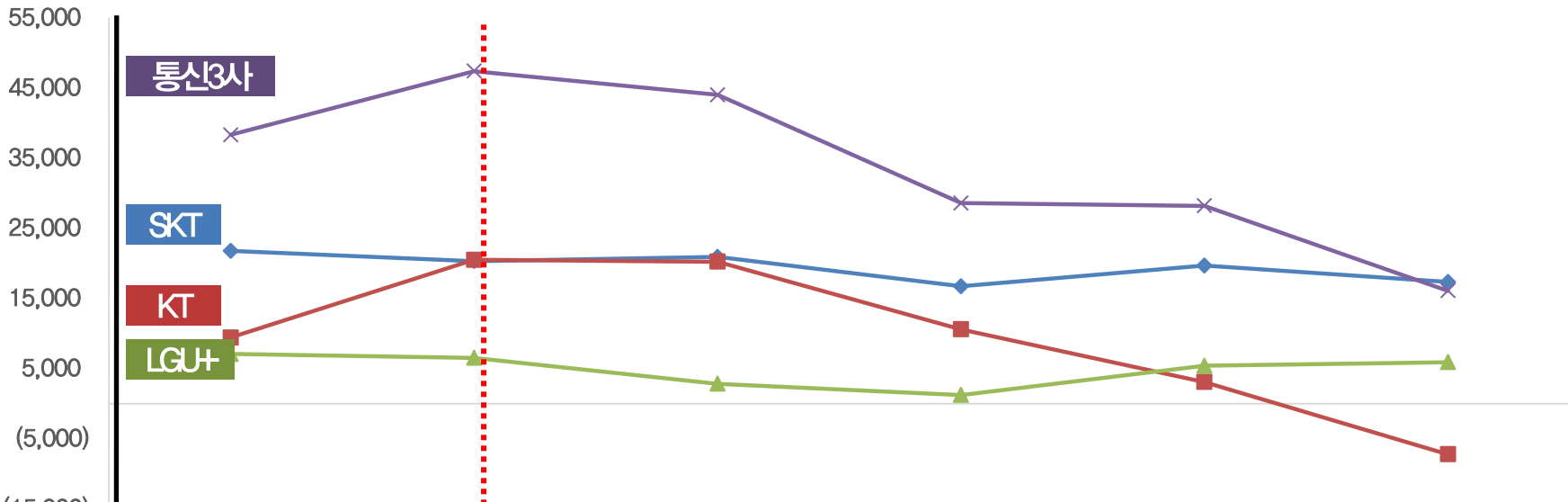


※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수익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③ 통신3사 영업이익

통신3사의 영업이익(유무선 통합)은 '10년도를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과거 6년간 연평균감소율 $\Delta 15.9\%$)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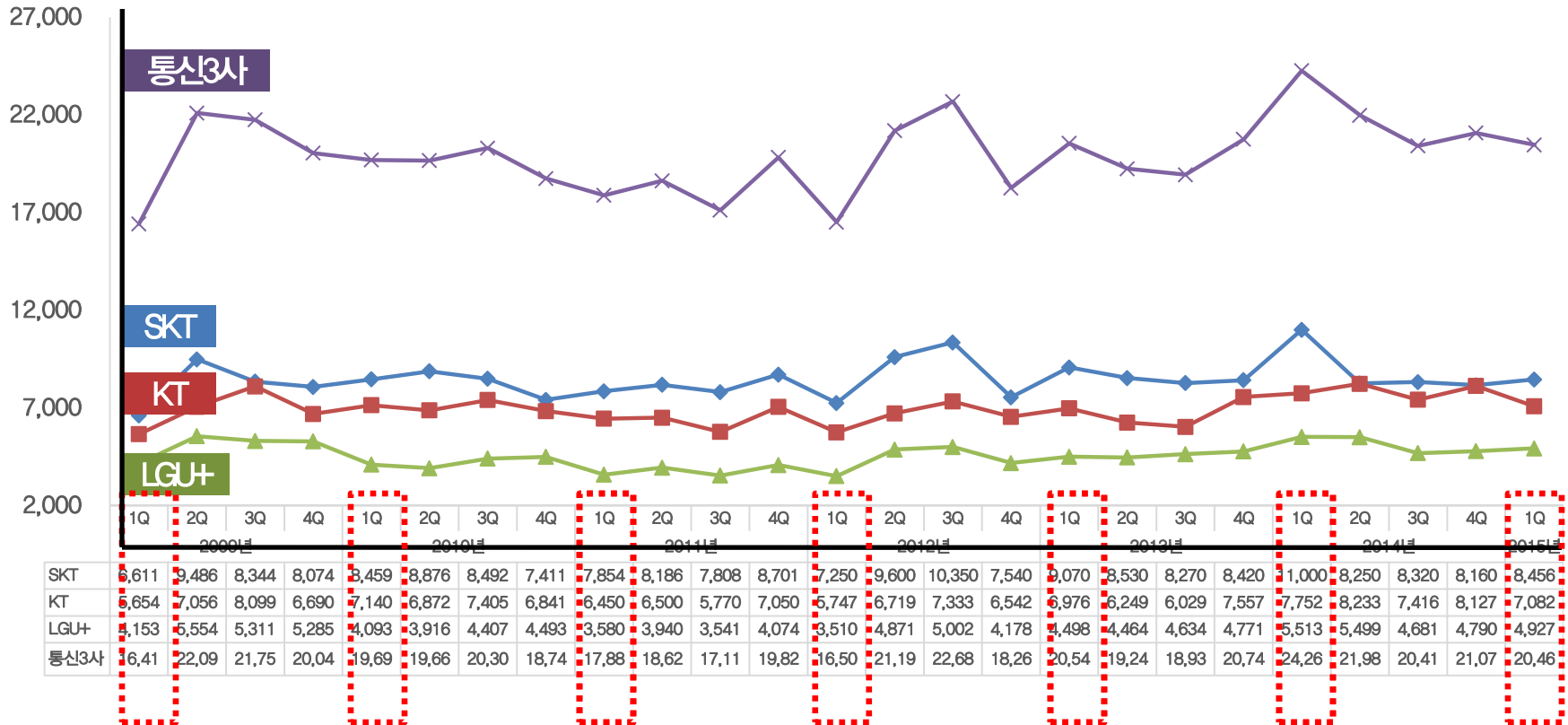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KT	21,793	20,350	20,945	16,754	19,696	17,372
KT	9,452	20,533	20,250	10,610	3,099	(7,195)
LGU+	7,106	6,553	2,858	1,259	5,426	5,931
통신3사	38,352	47,436	44,053	28,623	28,221	16,108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④ 통신3사 유·무선 마케팅비

LTE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과열로 '14년 마케팅비는 증가하였으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5.1Q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단, 과거 1분기 비교 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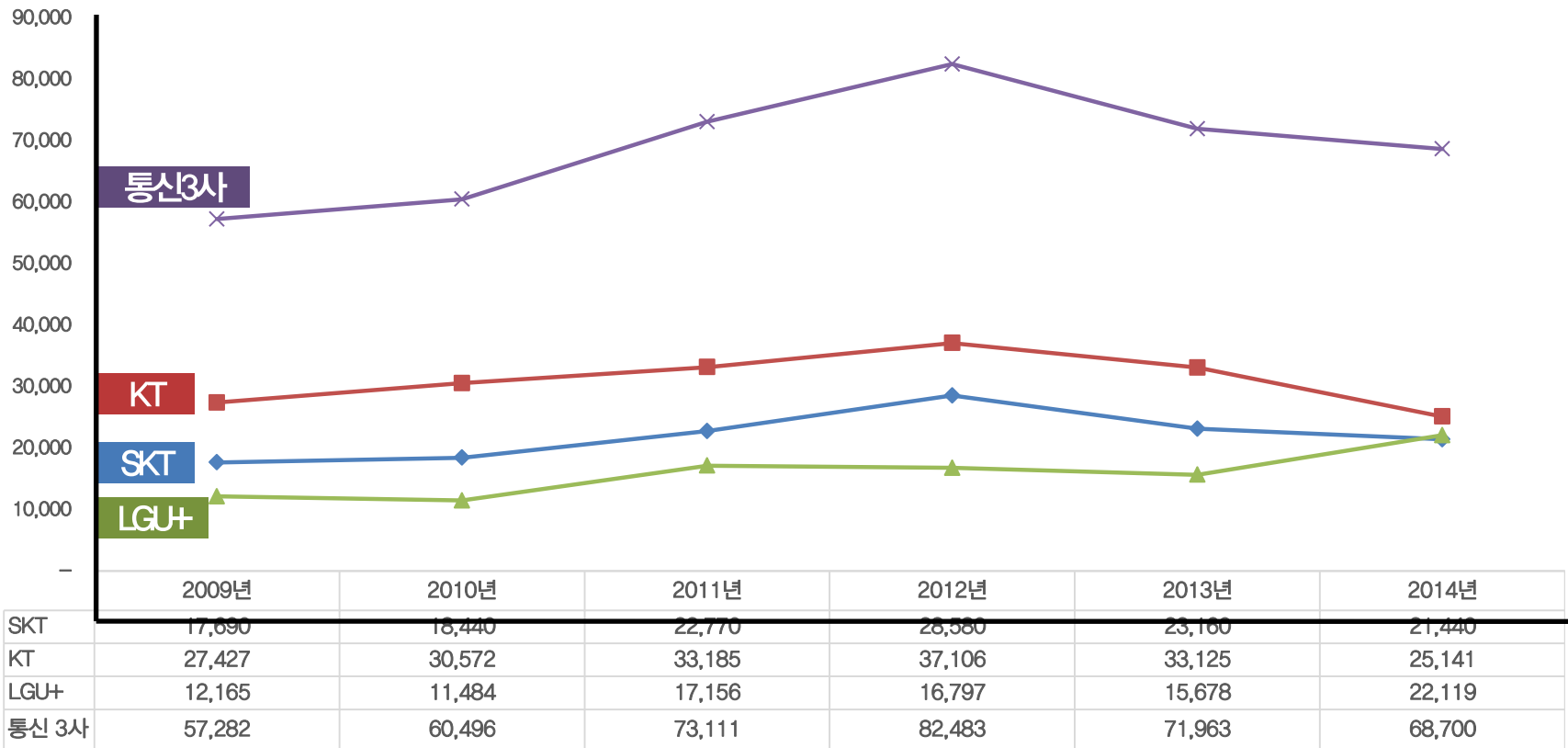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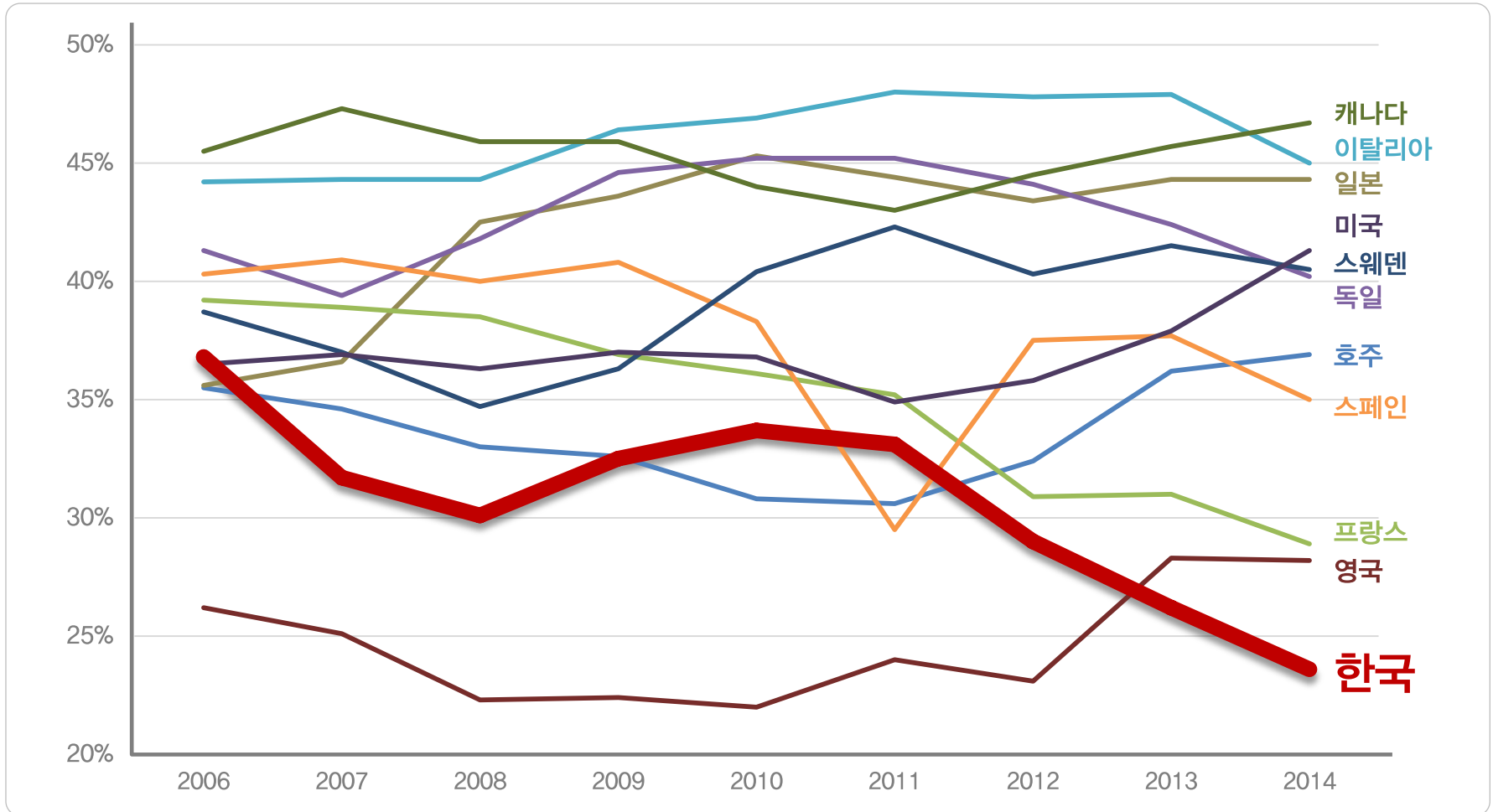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⑤ 통신3사 유·무선 설비투자

LTE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설비투자 감소(과거 6년간 연평균증가율 3.7%)

(단위:억원)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⑥ 해외 주요국가 EBITDA 마진율



※ EBITDA 마진율(%) = "(영업이익+감가상각비) / 영업수익" 로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능력을 평가
출처 : Global Wireless Matrix '14,2Q(Merrill Lynch)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⑦ 관련 산업군/기업과의 비교 ('13년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 3사 (SKT, KT, LGU+)



영업이익률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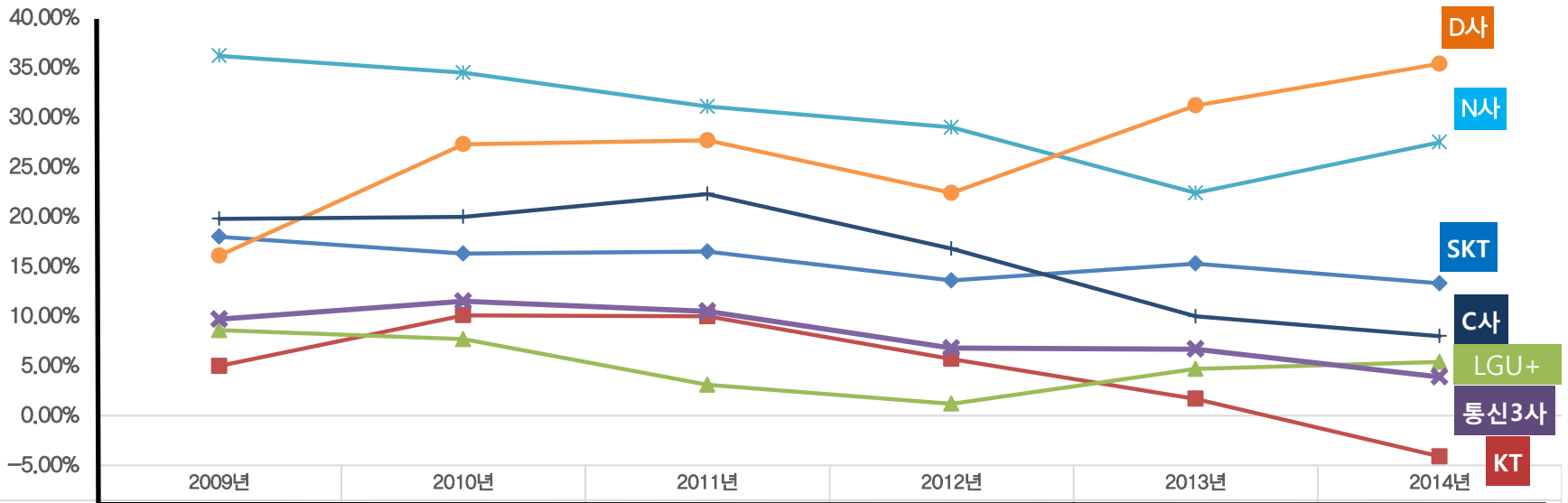
영업이익률 6.7%

인터넷기업N사	• 매출액 2조3,000억	• 영업이익 5,200억	• 영업이익률 22.6%
인터넷기업D사	• 매출액 2조1,000억	• 영업이익 659억	• 영업이익률 31.2%
케이블방송C사	• 매출액 1조 2,000억	• 영업이익 1,158억	• 영업이익률 10.0%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6개 대분류 중 하나로 방송, 영화, 유무선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포털 등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 ⑦-1 관련 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주요 인터넷기업(N사, D사), 방송통신사업자(C사) 등 보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수준(과거 6년간 지속)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KT	18.00%	16.30%	16.50%	13.60%	15.30%	13.30%
KT	5.00%	10.10%	10.00%	5.70%	1.70%	-4.10%
LGU+	8.60%	7.70%	3.10%	1.20%	4.70%	5.40%
통신3사	9.70%	11.50%	10.50%	6.80%	6.70%	3.90%
네이버	36.20%	34.50%	31.10%	29.00%	22.40%	27.50%
N사	16.10%	27.30%	27.70%	22.40%	31.20%	35.40%
D사	19.80%	20.00%	22.30%	16.80%	10.00%	8.00%
C사	18.00%	16.30%	16.50%	13.60%	15.30%	13.30%

최근 통신정책 추진현황과 효과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 환경

- 통신환경이 급변하고, 데이터 서비스 확대, 고가 스마트폰 위주 유통 등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박근혜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

새정부 정책 방향

-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시장구조와 소비자 행태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해왔고, **최근 통신비 인하 등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최근 통신정책 추진현황과 효과

① 알뜰폰 활성화

업계의 적극적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해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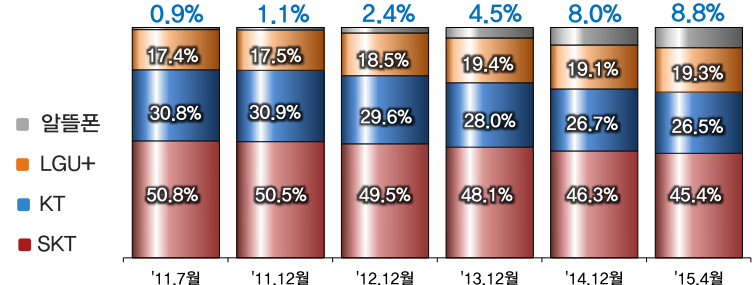
가입자 수

'11.7월 알뜰폰 정책 도입 이후 가입자 수는 47.6만명에서 '15.4월 현재 505만명(10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점유율은 0.9%에서 8.8%로 확대

알뜰폰 가입자 추이(명)



알뜰폰 점유율(%)



매출액

서비스 매출은 955억원에서 4,555억원으로 4.7배 성장

경쟁구조

이통시장 경쟁구조는 알뜰폰 도입 이전 5:3:2 구조에서 도입 이후 45.5 : 26.6 : 19.3 : 8.7(SKT : KT : LGU+ : 알뜰폰)로 변화

요금인하

알뜰폰 이용자는 기존 이통사 이용고객보다 월평균 20,683원*(연간 24만원)을 적게 지출(57% 요금절감 효과)

※ 이통 3사 평균 ARPU 36,404원, 알뜰폰 사업자 후불 가입자 평균 ARPU 15,721원

최근 통신정책 추진현황과 효과

② 단말기유통법 안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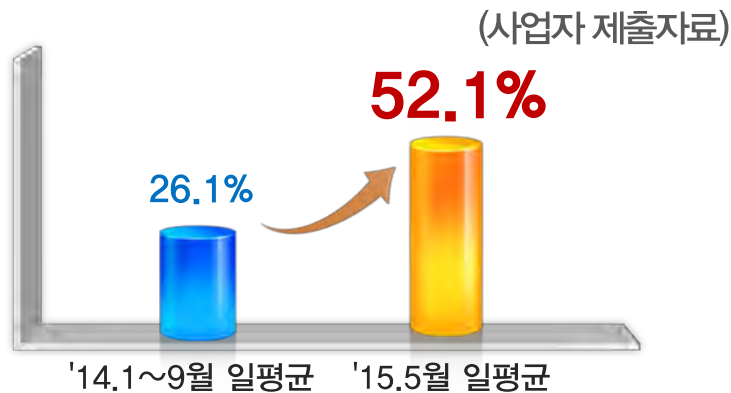
가. 이용자 차별 해소

지원금 수혜자 간 차별 해소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어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해소

- 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투명한 공시를 통해 장소, 연령, 정보력 격차로 인한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는 등 지원금 수혜자 간 차별이 해소

기기변경 가입자 증가



기기변경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가입자 지원금 증가

요금제	공시지원금(원)	
	공시지원금	유통망 추가 15% 포함
100요금제	300,000	345,000
75요금제	281,000	323,150
69요금제	276,000	317,400
55요금제	265,000	304,750
45요금제	258,000	296,700
35요금제	250,000	287,500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을 많이 주는 갤럭시 A5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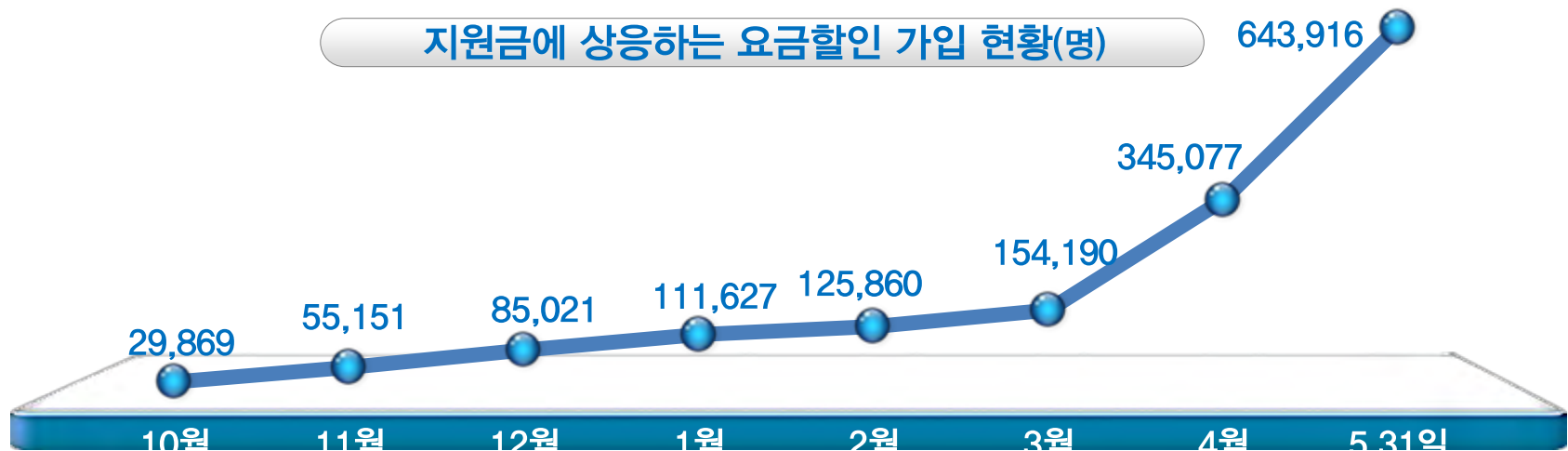
가. 이용자 차별 해소

지원금 수혜·비수혜자 간 차별 완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지원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차별이 완화

-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이 대폭 상향(12%→20%, '15.4.24일) 되어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
- 할인율 상향 후 38일만에 47만명(일평균 1.2만명)이 신규로 가입해 할인율 상향 전(일평균 858명, 전체 17.6만명)과 비교하면 일평균 가입자가 14배 이상 증가(전체 누적 64.4만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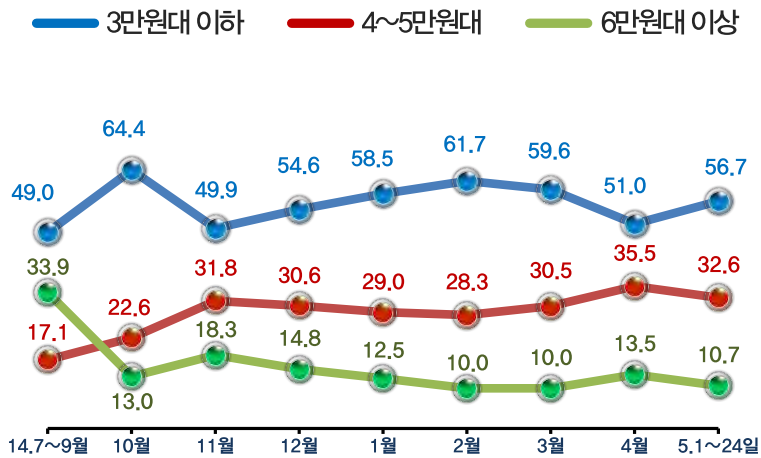


나. 통신비 거품 제거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통신비 거품이 제거

-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33.9%→11.0%) 및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45,155원→38,085원, △15.7%)이 법 시행 전(14.7~9월) 대비 크게 낮아짐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평균 가입요금 수준



다. 단말기 비용부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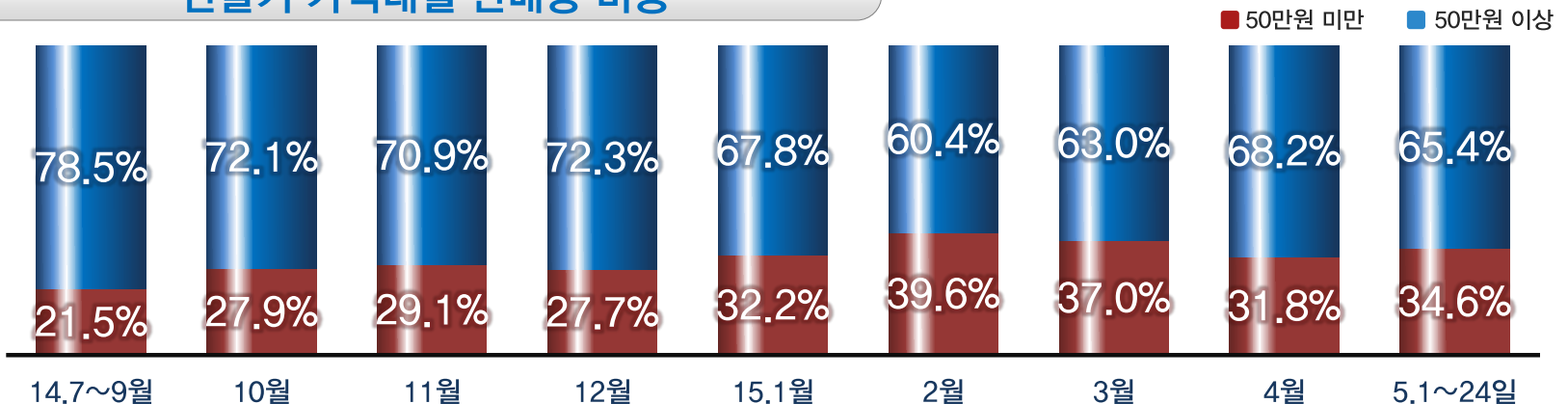
해외와의 단말기 최초 출고가 격차가 감소하고,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고 있던 고사양의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기 시작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국내와 해외의 최초 출고가 비교

구분	갤럭시노트2 ('12.9.27일 출시)	갤럭시노트3 ('13.9.25일 출시)	갤럭시 노트4 ('14.10.31일 출시)
해외 7개국 평균	919,048원	961,250원	911,113원
국내 출고가	1,089,000원	1,067,000원	957,000원
가격 차이	+169,952원	+105,750원	+45,887원

○ 40~50만원대인 갤럭시A5, A7 등은 출시('15.1월)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량 10위권 내를 유지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량 비중



갤럭시 S6 32G 총 통신비용 비교

	통신요금 (데이터 2GB)			단말 구입비 (갤럭시 S6, 32G)			총 통신비용
	요금제명	월요금	총요금 (2년)	출고가	지원금	실구매가	
미국 (Verizon)	MORE Everything Plan(2GB)	9.6만원	231.2만원	72.2만원	48.2만원	24.1만원	255.3만원
캐나다 (Rogers)	SHARE EVERYTHING PLANS (2GB)	7.9만원	189.5만원	74.3만원	49.6만원	24.8만원	214.3만원
프랑스 (Orange)	Origami Zen (2G)	3.6만원	86.7만원	85.5만원	23.1만원	62.4만원	149.1만원
한국 (SKT)	LTE T끼리 55 요금제(2GB)	4.5만원	107.6만원	85.8만원	8.0만원	77.8만원	185.4만원

주. 1) 시장환율(1,094.6원/USD, 877.19원/CAD, 1,204.99원/EUR) 기준 환산, VAT 포함
 2) 한국 SKT 2년약정시 약정할인 15,675원 포함, 10만원 요금제 기준 지원금 15만원 가정시

최근 통신정책 추진현황과 효과

③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도입 배경

-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나, 통신요금은 음성 중심의 체계가 유지되어 옴

※ 전체 트래픽에서 음성과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99:1('15.3월 기준)

- 미래부는 공약·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연내 유도하기로 하고, 이통사와 협의를 추진해 왔음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성과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마케팅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하고
금번 요금제 출시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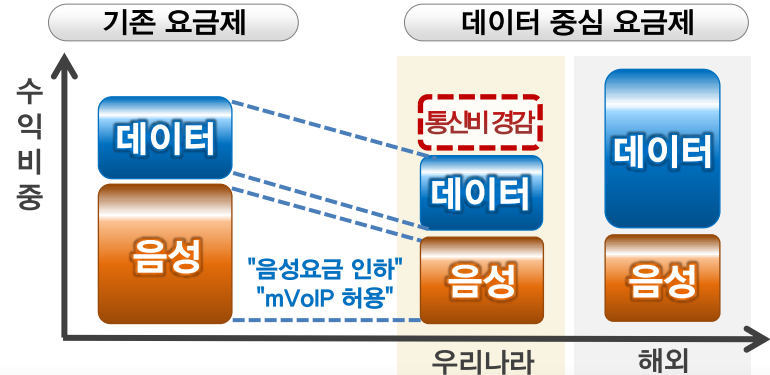
도입 방향

- 음성통화를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구조 개편
- 모바일 시대 본격화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 수준 설정

요금제 구조



음성·데이터 요금조정



- 해외 이통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시 음성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요금은 상향
-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탄력적인 데이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초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편익을 강화

시행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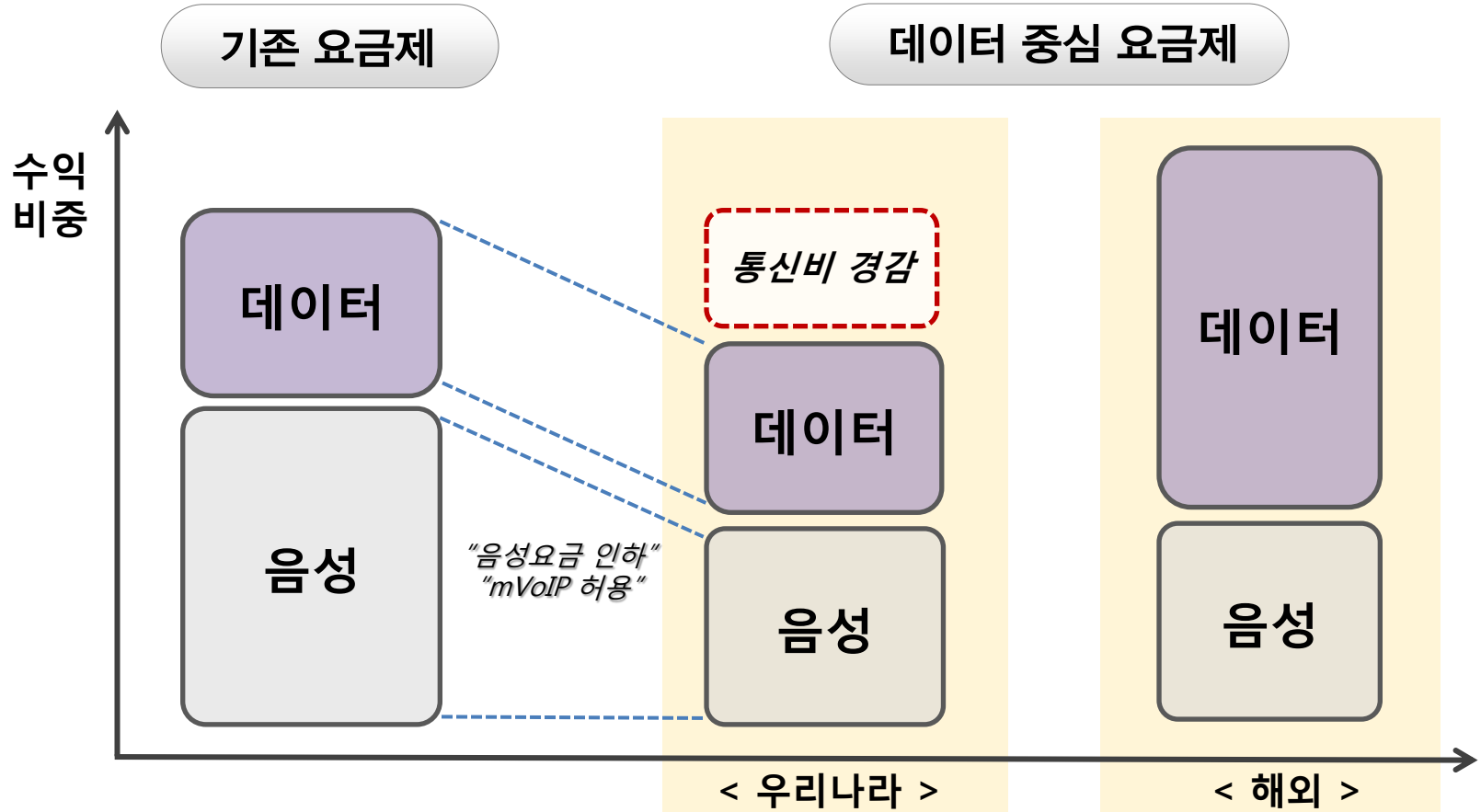
- 요금제 출시 직후 초반 가입자 수는 과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요금제 대비 2배 수준일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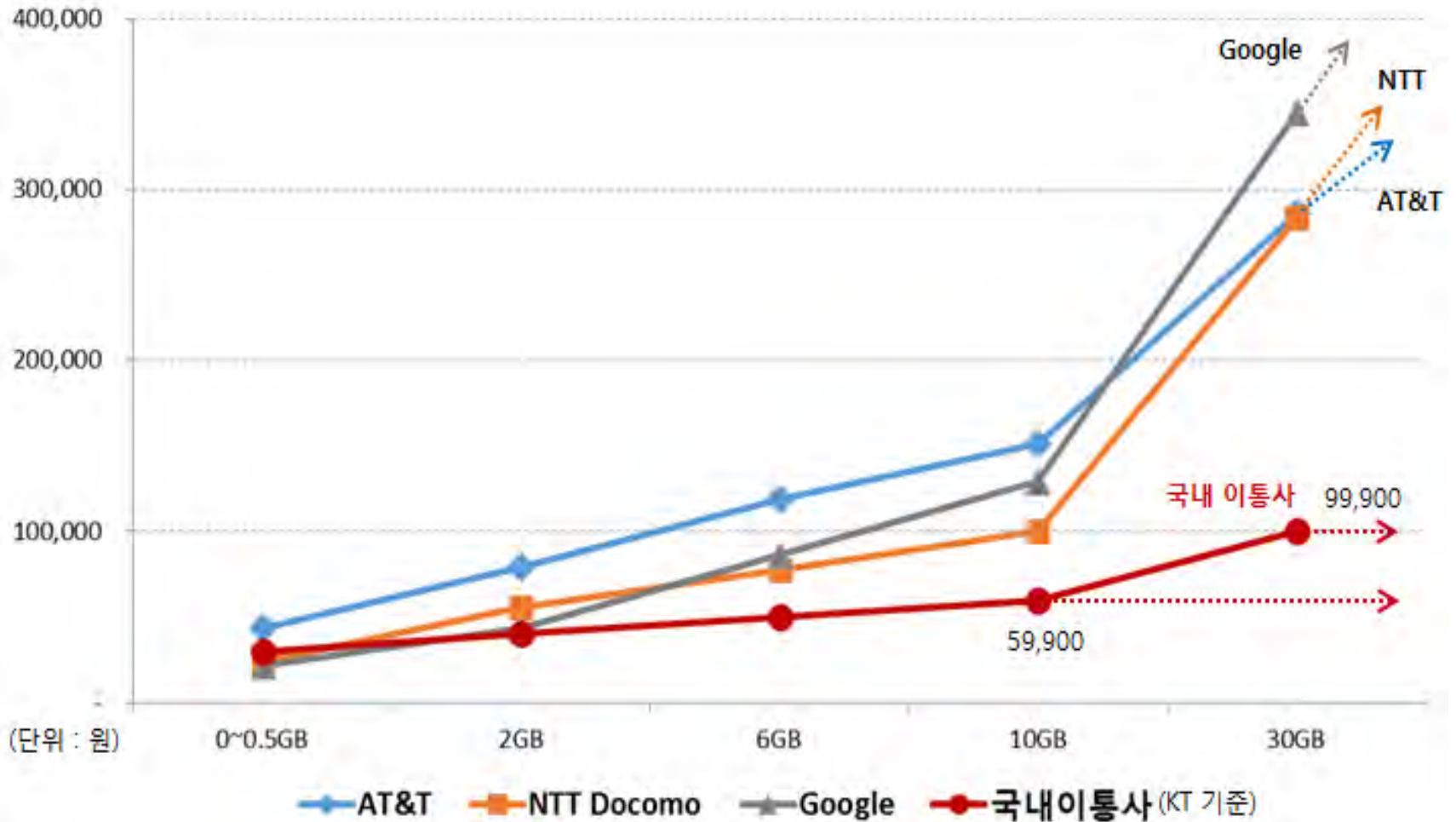
※ '15.6.4. 기준으로 이통3사 가입자 총 220만명 (SKT 5.20 출시, KT 5.8 출시, LGU+ 5.15 출시)

- 음성 무제한 요금제 29,900원 가입자가 72만명으로 전체의 28%, 특히 2~3만원대 저가 요금구간 가입 비중이 56%로 높은 수준임
- 데이터 무제한 요금 시작구간 인하, 데이터 당겨쓰기 · 이월 등 탄력적인 소비 촉진, 모든 요금구간에서 모바일 콘텐츠 무료제공 등 데이터 혜택 강화

기대효과

-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으로 기존 유선 · 음성 중심의 통신 패러다임이 모바일 ·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 콘텐츠 등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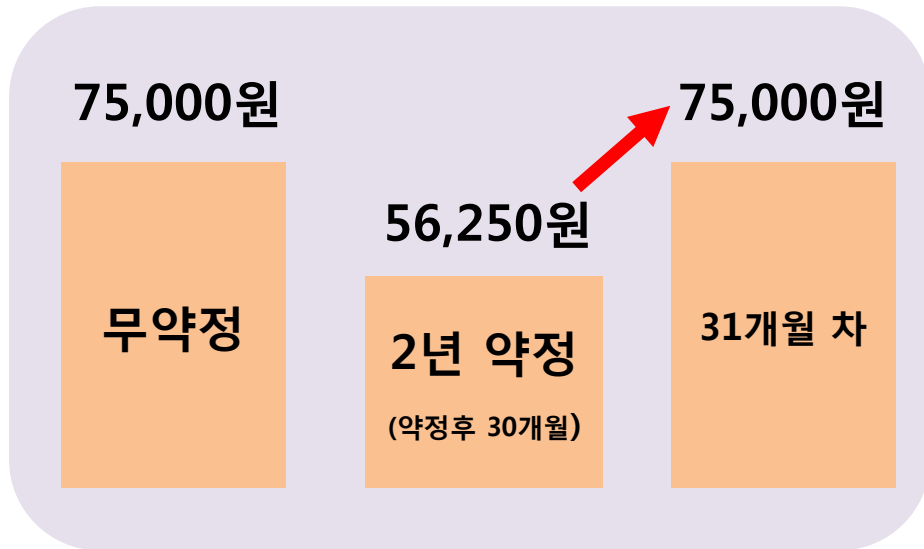


참고3

해외 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비교(2)

(단위: 원, \$1=1,079원, ¥100=903원)

구분		Verizon	AT&T	Google	NTT 도코모	SKT		KT	LGU+
						신규	20% 요금할인	신규	신규
음성· 문자 무제한	기본 계정료	43,160원 (\$40)	43,160원 (\$40)	21,580원 (\$20)	24,381원 (¥2,700)	29,900원 (+300MB)	23,920원 (+300MB)	29,900원 (+300MB)	29,900원 (+300MB)
	300MB	-	(+\$20) 64,740원	-	-	-	-	-	-
데 이 터 유 선	500MB	(+\$20) 64,740원	-	-	-	-	-	-	-
	1GB	(+\$30) 75,530원	(+\$25) 70,135원	(+\$10) 32,379원	-	(+6,100원) 36,000원	(+4,880원) 28,800원	(+5,000원) 34,900원	(+4,000원) 33,900원
	2GB	(+\$40) 86,320원	-	(+\$20) 43,172원	(+¥3,500) 55,986원	(+12,100원) 42,000원	(+9,680원) 33,600원	(+10,000원) 39,900원	(+9,000원) 38,900원
	3GB	(+\$50) 97,110원	(+\$40) 86,320원	(+\$30) 53,965원	-	(+17,100원) 47,000원	(+13,680원) 37,600원	(+15,000원) 44,900원	(+15,000원) 44,900원
	4GB	(+\$60) 107,900원	-	(+\$40) 64,758원	-	-	-	-	-
	5GB	-	-	(+\$50) 75,551원	(+¥5,000) 69,531원	-	-	-	-
	6GB	(+\$70) 118,690원	(+\$70) 118,690원	(+\$60) 86,320원	-	(+21,100원) 51,000원	(+16,880원) 40,800원	(+20,000원) 49,900원	(+20,000원) 49,900원
	8GB	-	-	(+\$80) 107,900원	(+¥6,700) 84,882원	-	-	(+25,000원) 54,900원	(+25,000원) 54,900원
	10GB	(+\$80) 129,480원	(+\$100) 151,060원	(+\$100) 129,480원	-	(+31,100원) 61,000원	(+24,880원) 48,800원	(+30,000원) 59,900원	(+30,000원) 59,900원
	15GB	(+\$100) 151,060원	(+\$130) 183,430원	(+\$150) 183,430원	-	-	-	(+40,000원) 69,900원	(+40,000원) 69,900원
	20GB	(+\$140) 194,220원	(+\$150) 205,010원	(+\$200) 237,380원	-	(+50,100원) 80,000원	(+40,080원) 64,000원	-	-
	30GB	(+\$225) 285,935원	(+\$225) 285,935원	(+\$300) 345,280원	-	(+70,100원) 100,000원	(+56,080원) 80,000원	(+70,000원) 99,900원	(+70,000원) 99,900원
	40GB	(+\$300) 366,860원	(+\$300) 366,860원	(+\$400) 453,180원	-	※ 10GB부터 데이터 무제한 - 제공량 초과 시 1일 2GB 제공 (2GB 초과 시 3Mbps 속도제한)			
	50GB	(+\$375) 447,785원	(+\$375) 447,785원	(+\$500) 561,080원	-				
	60GB	(+\$450) 528,710원	-	(+\$600) 668,980원	-				
	80GB	(+\$600) 690,560원	-	(+\$800) 884,780원	-				
100GB	(+\$750) 852,410원	-	(+\$1,000) 1,100,580원	-					



<기존 LTE 75>



<데이터중심요금제>

	데이터중심요금제	20% 요금할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59,900원	47,920원
음성 무제한	29,900원	23,9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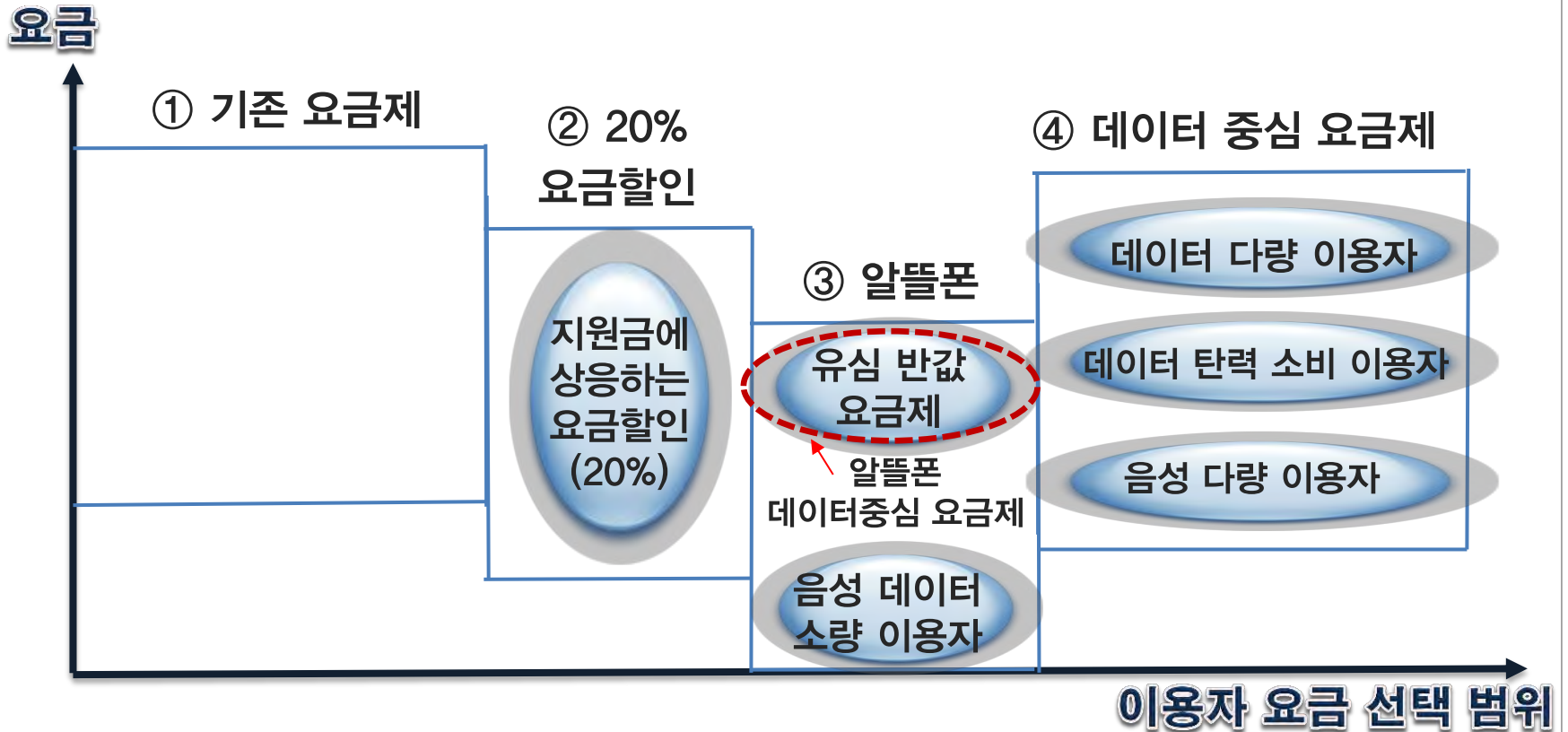
종합 효과

시장 회복 및 정상화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투명화되어 휴대폰 가격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
- 이통사와 제조사가 시장을 좌우하는 공급자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변화
- 20% 요금할인 제도와 단말기유통법의 시장안정화 효과로 가능하게 된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이통시장을 지원금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

소비자 선택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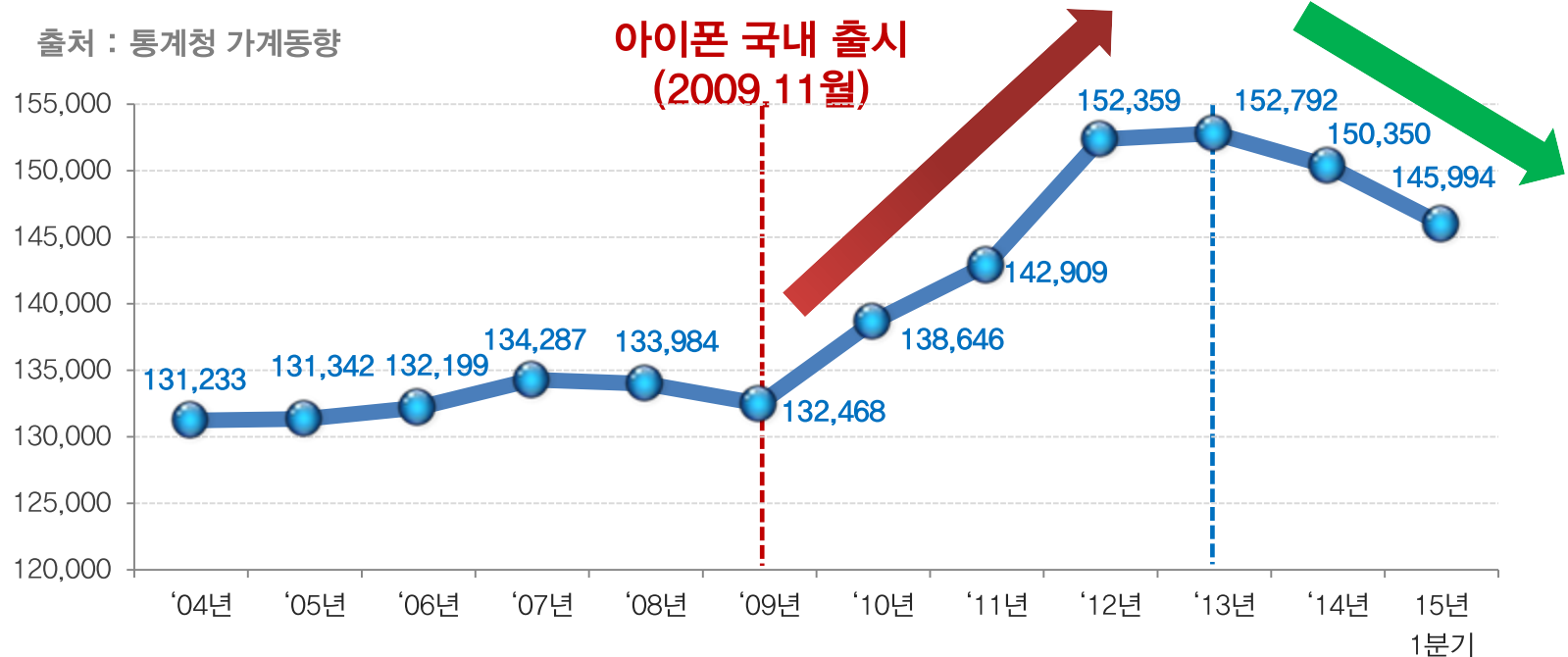
- 새로운 통신정책과 환경변화는 소비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에 맞는 통신소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기존①→②,③,④)을 제공,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



가계통신비 효과

-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09년~'12년까지 크게 증가 하였으나, 새정부 첫해인 '13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14년에 최초로 감소하였으며, '14.4분기에 이어 '15.1분기에도 연속 감소

가계통신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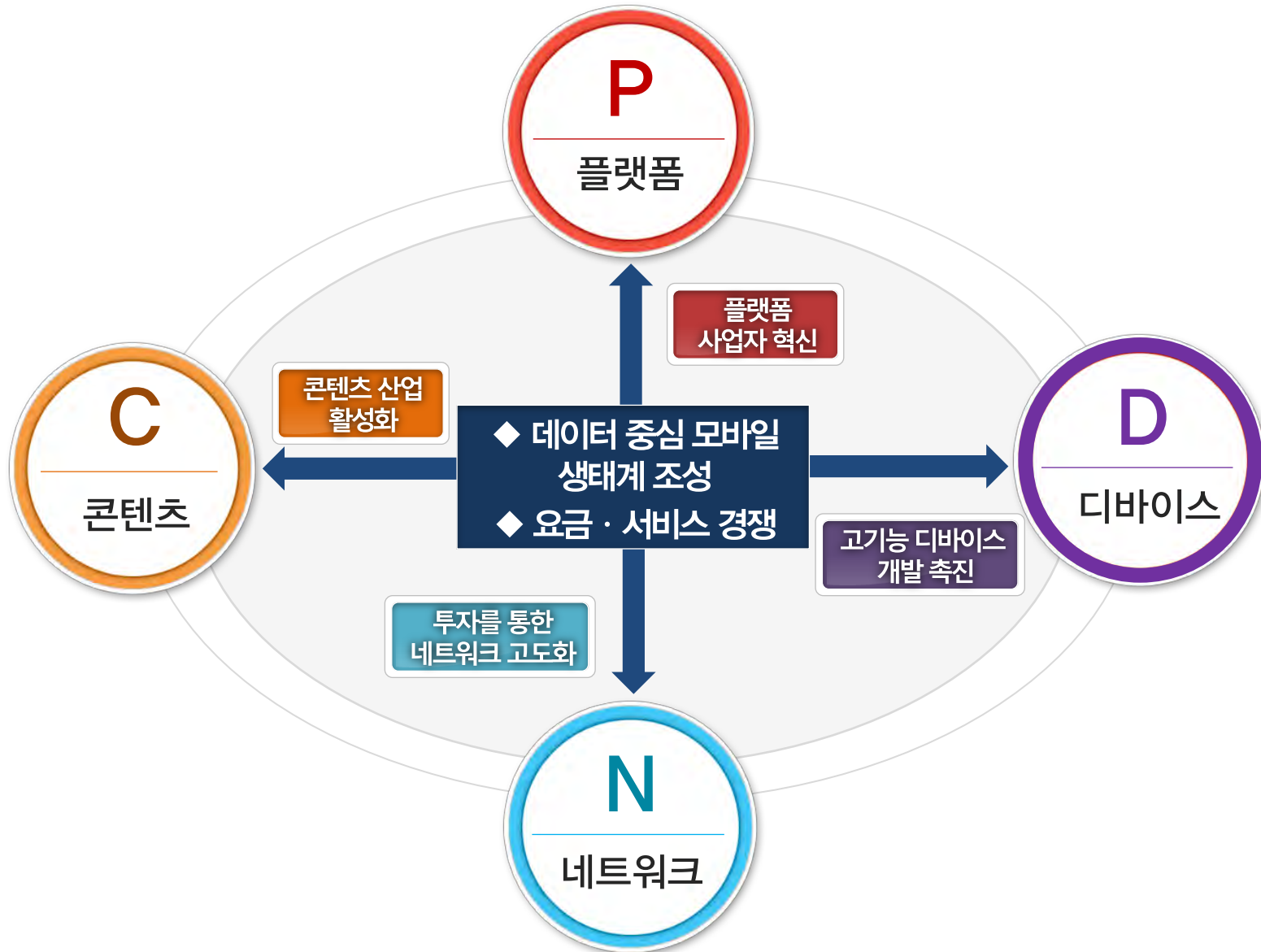
새로운 모바일 벤처 생태계 조성

- 국민들이 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및 연관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
-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혁신적인 콘텐츠·서비스의 출현 등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할 전망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갖고 있음

이통사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脫) 통신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전망

- 과거 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우리나라 ICT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